

#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성경 사무엘상 1:19-28

## 신 67 쉼대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내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볼까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기뻐하셔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 찬양

### 1 거룩하신 하나님(은혜의 찬양 197장)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 2 사랑하는 주님 앞에(찬송가 220장)

- 1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 2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총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 3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 말씀 읽기 사무엘상 1:19-28

- 19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 20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 다 함이더라
- 21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 22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젓 떼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뵈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 23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젓 떼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젓 떼기까지 기다리다가
- 24 젓을 떼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 25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 26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 27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 28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 본문 배경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아내의 이름은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브닌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어느 날 엘가나와 한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동침했는데,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삼상 1:19)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고, 한나는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얻은 한나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말하며, 아들을 주신 분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립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양육하며 젓 떼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를 대제사장 엘리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무엘의 평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 또한 믿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자신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을 잊지 않고, 자신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기억하며,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 말씀 관찰

#### 1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나요?(19-20절)

답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해설 한나는 깊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제사장 엘리에게조차 오해를 받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간절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사무엘이라는 가장 귀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아들을 주셨다”는 결과보다,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을 먼저 만지셨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한나는 응답을 받기 전부터 얼굴빛이 달라졌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이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마음임을 보여 줍니다.

#### 2 한나는 응답받은 후 무엇을 했나요?(27-28절)

답 사무엘을 하나님께 다시 드렸습니다.

해설 한나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자신의 소유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아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겨 드린다는 것은 단순한 약속 이행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한나의 헌신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얻은 응답이었기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 줍니다. 기도는 소유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 드리는 헌신으로 이어질 때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 한 시대를 준비하십니다.

### 말씀 적용

#### 1 눈에 보이는 기도의 응답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있나요?

#### 2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나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보세요.

### 말씀 암송

## 5-1 그러므로 나도 그를

사무엘상 1장 28절

작곡 송세라

♩ = 84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 이 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 하니라 사무  
 엘 상 일 장 이 십 팔 절 말씀 아 멘



### 가정에배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한나의 기도를 통해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눈물과 마음의 신음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기도의 응답만을 바라기보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기신 은혜와 축복을 붙잡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이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진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